

글쓴이:  
Global X Team

날짜: 2020년 11월 30일 주제:  
테마



Global X ETF 리서치

# 바이든 정부와 코로나19가 인프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프라는 미국의 중추이며 미국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프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 소도시, 도로, 다리, 항구 및 공항을 개발하며 상업을 활성화합니다. 1월에 미국 인프라 재건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3부 시리즈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조달 갭, 부족한 인프라, 미래의 인프라, 그리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금과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사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1월 이후 추가 평가가 필요한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처음 나타나 3월까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고, 현재도 여전히 이에 대응하는 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5,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거의 140만 명이 사망했으며(두 수치 모두 2020년 11월 23일 기준), 크고 작은 국가들이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경제의 일부를 봉쇄해야만 했습니다.<sup>1</sup> 이러한 조치는 엄청난 대가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sup>2</sup>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연방 적자 예상치를 약 400% 높이고 이자율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추는 일련의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sup>3</sup>
- 2020년 11월 초에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공화당은 상원의 과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조지아주에서는 1월 결선 투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8년 이래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했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로 인해 미국의 대중이 현재 이념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는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반면, 분열된 정부는 분열된 국가의 큰 과제인 양당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인 대부분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프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정부의 리더 교체와, 저금리 시대,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가 미국을 가리고 있는 와중 인프라 개발은 이전과 변화할 예정입니다.

## 팬데믹은 인프라 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도시의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고 도시화가 확대됨에 따라 수용 가능한 물리적 구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도시화의 다년간의 구조적 추세는 인프라 개발 계획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추세에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세계적인 외출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도시 생활이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매력을 보이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도시 탈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 중 다수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 이주량이 늘어났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러한 도시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이주하려는 개인들이 80% 많아졌으며, 5월부터 8월까지의 이주 수요가 작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sup>4</sup> 이는 도시가 사라질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요 도시, 위성 도시 및 교외의 소도시에 걸친 인구 분포가 변하여 물리적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타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나 사무실의 인기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인프라는 점유율 측면에서 최적화되고(“적을수록 더 좋음”) 복원력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및 보강하면서도 도시를 혁신의 중심으로 만드는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이는



공간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드는 모듈식 기능의 추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시의 많은 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회화의 영역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 기술은 접촉 추적 및 기타 질병 예방 노력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대중 교통은 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질병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 버스 및 지하철 근로자의 2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8</sup> 대중 교통 수단의 다양화 및 수상 택시 같은 서비스가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지하철의 개방형 통로와 같은 업그레이드는 공간을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sup>9</sup> 또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도록 대중교통의 운영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팬데믹 초기의 외출 자제 명령으로 많은 근로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의존하여 재택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문을 다시 열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택 근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은 과거보다 유연한 업무 배치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acebook, Twitter, Slack과 같은 회사는 이제 무기한 원격 근무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팬데믹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디지털 인프라의 증가는 앞으로 이러한 불리한 점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와 하드웨어의 백엔드 네트워크가 그만큼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경제 정책과 잠재적 코로나19 복구 노력의 주요 수단이라는 플랫폼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2조 달러 규모의 클린테크 및 인프라 계획으로 상업을 촉진하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편함으로써 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배기가스 순 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전환과 미국의 디지털 시대 선두 유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sup>7</sup>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sup>10</sup>

#### 물리적 인프라

- 연방 자금을 미국의 고속도로, 도로 및 다리를 소유한 주, 도시 및 소도시에 보내고 고속도로 신탁 펀드를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업그레이드
- 항구, 내륙 수로, 승객용 및 화물용 철도와 같이 상업을 촉진하는 인프라의 재할성화. 여기에는 전국에서 고속철도를 확장하고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국 도시에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로 배기가스 대중 교통을 제공하려는 목표가 포함됩니다.
- 400만 채의 건물을 개조하고, 200만 주택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150만 채의 지속 가능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미국 인프라의 복원력을 개선
- 배관, 하수구 및 처리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고 수질 모니터링 기술을 통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 클린테크

- 청정 에너지, 탄소 포집, 사용 및 보관(CCUS) 기술, 스마트 그리드 및 고정식 보관에 투자함으로써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탈탄소화
- 지속 가능한 가전제품 및 현장 청정 에너지 생성을 포함하는 전기화 및 에너지 효율성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35년까지 미국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을 50%까지 감축
- 2030년까지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 및 건설하고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복원하여 운송부문 배기가스를 전기화
- 전기화, CCUS 및 청정 에너지 투자를 통해 저탄소 제조 부문을 개발



### 디지털 인프라

- 시골 지역의 광대역 접속을 확대하여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속 인터넷 제공. 여기에는 상당한 연방 자금 지원, 광대역 관련 일자리 제공, 지방 정부 소유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도시 및 소도시 지원, 연방 소유 통신 자원의 이용, 광대역 제공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협력이 수반될 것입니다.
- 인프라에 기술과 데이터를 통합하고 혁신적인 도시 계획 전략과 스마트 도시 기술에 자금을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 출현을 지원

### 구축 방법

많은 사람들이 "파란 물결" 또는 민주당이 통제하는 의회 없이 어떻게 이 계획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질문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업률이 지속되고 현재의 확진 추세 때문에 추가 봉쇄가 있을 것이므로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달에 도입하는 모든 부양책 계획에 인프라 투자를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통령이었던 2009년 당시 바이든은 2009년의 미국 복구재투자법(ARRA)을 제정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법은 대규모 침체기 후에 인프라 투자에 1,0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sup>10</sup> 이는 청정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막대한 고용 지원 가능성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양당의 지원을 감안할 때 성공적일 수 있었습니다.
- 행정 명령 발동은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대통령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선호하는 수단입니다. 바이든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가입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연준이 금융 시스템 친환경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행정 명령에는 오바마 시대의 청정 전력 계획을 재추진하고 은행이 화석 연료 산업과의 사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도드-프랭크(Dodd-Frank) 조항 집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금의 실질적인 이용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모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즉시 행정부와 기관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이든은 행정부 전반에서 기후와 기반시설 우선 의제를 제시하는 인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국장, 교통부, 그리고 배출 가스, 에너지 사용 및 기후 투명성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장관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직위, 백악관 비서실장 및 연방 기관들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관리예산처장과 같은 광범위한 직위, 검찰총장,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과 같은 직위가 포함되며, 지명된 사람이 법률 및 경제 시스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합니다. 각료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바이든은 일정한 자리와 관련해 공화당 리더들과 타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당사는 신규 및 개조된 물리적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건설용 및 운송용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재와 콘크리트의 주성분인 시멘트, 전화용 구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용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운스트림으로 더 내려가보면, 물리적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청정 에너지 생산능력 구축에 진출한 회사들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중장비 생산, 그리고 청정 기술 가치 사슬의 부품 제조를 포함해 높은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셀룰러 및 연결 가치 사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려는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 결론

2020년을 맞이하여, 당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인프라 개발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렇게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프라 투자가 덜 필요하거나 덜 시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당사는 2020년의 사건들은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차세대 미국 인프라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운 의회가 취임함에 따라 미국의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데이터 센터 REIT 및 디지털 인프라 회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리스크, 무선 인프라 및 연결에 대한 수요 변화, 급속한 제품 노후화, 정부 규제, 그리고 자연 재해 및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받습니다. 클린테크 회사는 일반적으로 치열한 경쟁, 짧은 제품 수명 주기 및 급속한 제품 노후화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에너지 가격과 재생 에너지의 공급 및 수요의 변동성,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및 기타 정부 규제 및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법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 규제, 정치 및 기타 변화의 가능성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인프라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정부 규제, 자본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높은 이자 비용, 준법 및 환경 규제 변화와 관련된 비용, 경제 둔화 및 과잉 생산능력, 기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경쟁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 투자에는 통화 가치의 불리한 변동, 일반회계원칙의 차이, 또는 다른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본 손실 위험이 수반됩니다.

<sup>1</sup> 존스 홉킨스, “코로나바이러스 자원 센터”, 2020년.

<sup>2</sup> 워싱턴 포스트, “미국인들은 지난 10주 동안 4천만 건 이상의 실직수당을 청구했으며 지난 주에 210만 건이 추가로 청구되었다”, 2020년 5월 28일.

<sup>3</sup> 세인트루이스 연방, “나쁜 의료? 코로나19 후의 연방 부채 및 적자”, 2020년 5월 26일.

<sup>4</sup> Bloomberg CityLab,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이주 방식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 2020년 9월 16일.

<sup>5</sup> NYU, “뉴욕 시 교통국 직원 중 거의 1/4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보고하다”, 2020년 10월 20일.

<sup>6</sup> Bloomberg Citylab, “NYC, 마침내 미래의 지하철에 합류하다”, 2016년 2월 1일.

<sup>7</sup> JoeBiden.com, “기후 계획”, 2020년.

<sup>8</sup> JoeBiden.com, “청정 에너지”, 2020년.

<sup>9</sup> JoeBiden.com, “인프라 계획”, 2020년.

<sup>10</sup> NPR, “Joe Biden, 2009년 부양책 패키지를 관리한 방법을 돌아보다”, 2020년 4월 6일.